



# 전북도, 필수의료인력 장기근속·정주 지원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선정  
전문의 20명 장기근무 지원  
전북대병원 등 6개 기관 참여  
지역 필수의료 기반 강화

전북도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2026년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소아청소년과 등 8개 필수 진료과목에서 전문의 자

격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신규 전문의가 지역 의료기관과 5년 이상 장기 근무를 약정하면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주거지원과 교육·연수 등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올해 사업비 2억 9천만 원(국비 50%, 도비 50%)을 확보했으며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과 민간 종합병원 6개 의료기관이 참여해 지역 필수의료 전문의 2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문의의 장기근속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지역 필수

료 제공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참여 의료기관은 전북대학교병원,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군산의료원, 원광대학교병원, 남원의료원으로 6개 기관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과 민간 종합병원이 함께 참여하는 혼합형 운영모델을 제안해 지역 의료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참여 의료기관과 전문의에 대한

사업 관리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참여 전문의 모집과 사업 준비에 착수해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방상윤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의장은 "이번 시범사업 선정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며, "지역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전문의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전북지사직 인수위 "4중 소외 안 된다"

메가프로젝트 전북 배제 규탄 "도민 외면 노골적 지역 차별"

민선 9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신형식)가 지난달 30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전북 소외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인수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인수위원회 최종보고회 후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 발표한 총 1461조 원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에서 전북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특히 "서남권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광주·전남에만 800조 원을 몰아주고, 550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계획에서도 전북의 이

름은 완전히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존의 '3중 소외'를 넘어 전북을 배방 끝으로 내모는 노골적인 '4중 소외'라며 "180만 전북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외면한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전북이 선도해 온 피지컬AI의 전북 집중 육성 △전북 대상 대규모 반도체 기업 투자계획 즉각 제시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위원들은 "민선 9기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와 전북도민은 이번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분노와 절망을 느끼고 있다"며 "무너진 지역 균형발전의 가치를 바로잡고 도민 생존권을 사수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 전북자치도, 7월 반려견 미등록 집중 단속

7월 한 달 공원·산책로 점검  
등록·인식표·목줄 착용 확인  
미등록 최대 100만원 과태료

전북도는 5~6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종료에 따라 7월 한 달 반려견 미등록과 소유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려동물 유실·유기를 예방하는 한편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은 도내 14개 시군의 공원, 산책로,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 이용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동물등록 여부,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소유자의 기본 의무사항을 점검하며, 맹견은 입마개 착용과 책임보험 가입 여부까지 확인할 예정이

다. 현행 동물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이며, 지난 6월 3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도 등록 대상에 포함됐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실제 부과액은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미등록은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이며, 변경신고 미이행은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과 변경신고는 시군청과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동물보호센터 등),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정철 기자



<자료사진>

도는 매년 7월과 11월 두 차례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등록률을 높이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계도를 지속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과 이웃 모

두를 위한 기본적인 책임이자 약속"이라며 "이번 집중단속이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동물등록과 펫케어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 전북도, 농촌생활여건 개선 역대 최대 성과

취약지역 15개 마을 공모 선정  
국비 217억 등 302억 확보

전북도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취약지역 15개 마을 공모 선정 국비 217억 등 302억 확보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노후주택 밀집지역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마을의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이번 공모 선정된 15개 마을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신규 선정된 마을은 △군산 임피면 금산마을 △익산 낭산면 장암마을 △정읍 용동면 매당마을 △남원 사매면 수촌마을 △김제 금산면 소용마을과 성덕면 탄상마을 △진안 성수면 원좌마을과 진안읍 원단양마을 △장수 변암 원대마을과 계북면 어전마을 △임실 강진면 율치마을과 성수면 계월마을 △순창 구

림면 구곡마을 △부안 보안면 신복마을과 변산면 도청마을 등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노후주택 개보수, 재래식 화장실 회 주판 '2027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서 역대 최다로 도내 10개 시·군, 15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전북도는 국비 217억 원을 포함한 총 30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노후주택 밀집지역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마을의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이번 공모 선정된 15개 마을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신규 선정된 마을은 △군산 임피면 금산마을 △익산 낭산면 장암마을 △정읍 용동면 매당마을 △남원 사매면 수촌마을 △김제 금산면 소용마을과 성덕면 탄상마을 △진안 성수면 원좌마을과 진안읍 원단양마을 △장수 변암 원대마을과 계북면 어전마을 △임실 강진면 율치마을과 성수면 계월마을 △순창 구

##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전북 또 없었다

호남 반도체 광우행...전북 '허탈' 새만금 포함 기대감 꺾여  
전북 추가 투자 가능성도 거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밝힌 '3대 메가프로젝트'에 전북은 없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반도체 AI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대회'를 주재하고 '서남권 즉 호남권 반도체 단지 신규 조성'을 공식화했다. 이 자리에는 국내 반도체 대기업인

삼성전자 이재용회장과 SK 최태원회장이 참석했고, 호남에 8000조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단지 조성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북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용수와 전력(신재생에너지)이 풍부한 새만금에 반도체' 공단을 유치하겠다고 지방선거 후보자 및 민주당이 밝혀 전북도민들은 크게 환영했다. 실제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이 새만금에 200조원 규모의 반도체 공단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었다. 때문에 전북은 이번 이대통령의 '3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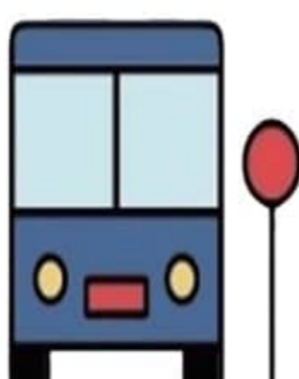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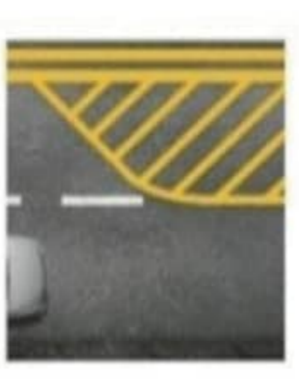

메가프로젝트'에 전북과 새만금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호남에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된다면 새만금도 당연히 포함될 줄 알았다. 하지만 호남에 8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단지는 전북이 아닌 광주로 결정됐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서남권 메모리 팹 4기 구축(800조 원), 충청권 HBM 패키징 팹 건설(81조 원), 반도체 전주 지체체계(30조 원), AI 데이터센터 구축(550조 원) 등 모두 1,461조원 규모가 투자된다. 전국적으로 1,461조원 규모의 투자가

발표되는 과정에 소외된 전북에는 단 한곳의 투자계획도 발표된 바 없다. 물론 평가에서는 "호남 800조 투자 지역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호남에서 (지역)조정이 가능하다"면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투자유치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은 이미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유치 계획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 축적 분위기가 다. 실제 광주에서 거론되는 반도체 공장 후보지는 광주 첨단3지구와 해남 솔라

시도, 군 공항 이전 이후 활용이 추진되는 광주공항 부지 등이다. 이재용 회장이 '광주'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광주 공항부지와 첨단3지구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북의 한 정치인은 "반도체 투자에

서 전북이 배제된 것은 맞다"면서도 "광주전남에 800조원 규모가 모두 갈수는 없다는 점에서 새만금에도 상당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 주·정차 금지구역

					
소방시설 인근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안전지대 사방으로 각각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여기서부터 30 속도제한이시요

# 덕진구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상반기 분할·합병 토지 대상 오는 7월 24일까지 조사 실시**

전주시 덕진구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토지특성 조사는 토지특성 조사항목에 대해 조사 및 기재하는 것으로, 구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서 토지(임야)대장과 건축

물대장 등 각종 공부 및 자가현황도면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올해 1월 1일 이후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용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 변경된 토지 특성을 반영하고, 공정한 과세 및 각종 행정업무의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공시할 계획이다.

구는 토지특성 조사 완료 이후에는 대상 필지를 확정해 오는 7월 28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에 돌입한다. 이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하고,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9일 최종 가격을 결정·공시한다는 구상이다. 이기섭 덕진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

는 국세,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돼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신뢰성 있는 공시지가 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두 차례 결정·공시되며,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도로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7만8938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30일 공시된 바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권기현)는 '2026년 2분기 우수 소방공무원'을 선발했다. <사진=전주덕진소방서>

## 전주덕진소방서 '우수 소방공무원' 선발

**화재·구조·구급·행정 분야 우수 소방공무원 5명 선정**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권기현)는 재난 현장과 행정업무 각 분야에서 적극적인 업무 수행과 성실한 자세로 조직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2026년 2분기 우수 소방공무원'을 선발했다. 우수 소방공무원 선발은 묵묵히 맡은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발굴·격려하고, 성실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자체 포상 제도다. 소방표창 규칙과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해 운영되며, 우수사례를 공유해 조직 내 사기 진작과 활력 있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발 대상은 전주덕진소방서 소방경 이하 전 직원이며, 화재·구조·구급·생활안전·행정 등 각 분야

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직원을 부서별 추천을 통해 접수한다.

이후 공적사실 검증과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분기마다 5명 이내를 최종 선정하며, 선정자에게는 소방서장 표창과 함께 포상휴가 1일이 부여된다.

이번 2분기 우수 소방공무원에는 △구급119안전센터 임정호 소방위 △야중119안전센터 서동선 소방장 △대응예방과 황지수 소방교 △현장대응단 고병윤 소방교 △팔복119안전센터 최종욱 소방사가 선정됐다.

이들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 대응은 물론 소방안전교육, 현장지휘 지원, 정책 개발,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등 각자의 분야에서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조직 발전과 시민 안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소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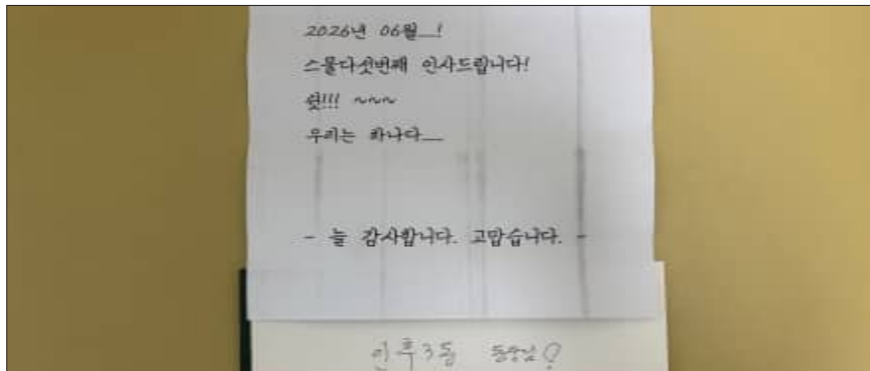
## 또다시 찾아 든 익명 기부자 성금

**아동·청소년 18세대 장학금 전달**

익명 기부자가 25번째 인후3동에 나눔 실천 손길이 이어졌다.

익명의 기부자는 지난달 30일 관내 취약계층 위한 손글씨 편지와 성금 35만원 봉투를 인후3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익명 기부자의 기부는 지난 2024년 6



월 시작 후 그간 25번째 나눔을 전하며 누적 성금은 총 847만원에 달한다.

그동안 기부된 성금은 관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18세대에 각 30만원씩 장학금으로 전달되어지고 있다.

이번 역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아동·청소년 가정에 소중히 전달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유럽연합(EU) 국제 웹 세미나 개최

**해외 도시와 협력 강화 전주시 관광정책 공유**

전주시와 전주시정연구원은 지난달 30일 EU(유럽연합)와 함께 국제도시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온라인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유럽과 아시아 등 여러 도시가 관광과 디지털 기술, 도시혁신 분

야의 정책과 경험을 나누는 국제도시 및 지역협력(IURC)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시는 현재 IURC 사업에서 '지속가능한 관광' 분야 협력도시로 참여하고 있다.

발표는 △전주한옥마을과 경계전, 전주향교 등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역사문화 관광정책 △'하이라이트 전주(Hi-Light

Jeonju)'와 문화유산 여행, 야시장 등 야간관광 콘텐츠를 통한 체험형 관광 활성화 전략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한옥마을 주변 주차 정보와 관광객 이동 데이터를 분석·관리하는 'AI 스마트빌리지' 사업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한 해외 도시들은 전주가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을 결합

해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점에 관심을 보였다.

또, 각 도시별 관광정책과 우수사례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번 국제 온라인 세미나를 계기로 오는 9월 17일로 예정된 '2026 전주미래도시포럼'에서 해외 도시들과 관광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 전주완산소방서 휴가철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 추진

**관내 총 102개소 대상**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휴가철 다중이용시설 이용객 증가와 냉방기기 사용 급증에 따른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올여름은 휴가철 이용객 증가와 냉방기기 사용 급증으로 다중이용시설 화재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소방본부 통계에는 최근 5년간 여름철(7~8월) 화재는 606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35명 인명피해와 264억 여원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전주완산소방서는 △관내 숙박시설 54개소 △수련시설 3개소 △운수시설 2개소 △영화관 9개소 △도서관 7개소 △판매시설 27개소 등 총 102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활동을 집중 추진한다.

주요 추진 내용은 △숙박·판매시설 등 화재취약 다중이용시설 대상 화재 안전조사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확인 △불시 화재안전조사 실시 △관서장 현장 행정지도 △여름철 전기화재 예방 홍보 △화재예방 서한문 발송 및 SNS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이다. /정소민 기자

## 덕진구 폭염대응 무더위 저감시설 운영 강화

**살수차·그늘막·무더위쉼터 등**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이기섭)가 맞춤형 폭염 대응 대책을 추진해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를 강화한다.

덕진구는 길어진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오는 10월까지 도로와 쉼터 등 공공시설물과 복지 분야를 아우르는 폭염 저감 및 완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먼저 구는 폭염특보 발효 시 주요 간선 도로를 중심으로 살수차 6대를 운행해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체감온도를 낮출 계획이다.

또 구는 주요 교차로와 보행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그늘막 260개소를 운영해 주민들의 온열질환 예방에 나서는 한편, 폭염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재난 안전대책 상황실 운영과 비상 연락 체계 유지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구는 무더위쉼터 정보 현행

아울러 구는 시민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세병공원 등 공원 내 수경시설 17개소를 낱씨·온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해당 시설물들에 대해 정기적인 물 교체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물놀이시설의 경우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위생·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폭염에 취약한 노인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관내 경로당 224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구는 무더위쉼터 정보 현행

화 및 안내표지판 점검을 실시했으며, 무더위쉼터 운영에 앞서 경로당 내 냉방기 점검과 특별냉방비 지원 등을 통해 쉼터 운영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구는 앞으로도 폭염이 장기화되는 기후 환경 변화에 대응해 생활밀착형 폭염 저감시설을 운영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전주 유물 수집

**오는 7월 31일까지 접수**

전주시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은 오는 31일까지 전시와 연구,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주 지역 관련 유물을 수집할 계획이다.

수집 대상 유물은 △전주 역사·문화 및 인물 관련 유물 △조선왕실 및 궁중문화 관련 유물 △어린·표준영정 제작 및 지정 관련 유물 △음식, 소리, 출판, 한지 등 전주 문화 관련 자료 △일제강점기 전주



독립운동 관련 자료 △근·현대 전주 지역 마을 관련 자료 등을 중심으로 수집·수탁할 계획이다.

모든 유물은 기증 및 기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유물 출처가 명확해야 하며, 도난·도굴품 등 불법으로 취득한 유물, 종중이나 공동으로 소유한 유물 등 소장자와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유물 등은 수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 서류 접수 후 자체평가와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유물의 가치와 평가액을 결정 후, 화상 공개를 통한 도난분화제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유물기증·기탁증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유물 기증 및 기탁 신청은 대상 유물과 함께 전주역사박물관 학예연구실에 방문해 담당자와 상담 후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단, 부피가 크거나 기타 사정으로 현장 접수가 어려운 경우, 전화로 문의 후 진행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 전주덕진서 '승진 임용식'

**9명 승진대상자 임용식 개최 '영예심·자긍심 가지고 업무 매진'**

전주덕진경찰서(서장 조영일)는 지난 30일 경감 윤득열 등 승진대상자 9명을 대상으로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임용식에서는 조영일 서장을 비롯한 동료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수와 환호 속에서 임명장 수여와 계급장 부착, 꽃다발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승진대상자인 경감 윤득열은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한 단계 승진한 만큼 영예심과 자긍

심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외 승진자들은 동료들의 격려 속에서 승진의 기쁨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새로운 계급장과 함께 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슴에 새기며 저마다의 다짐을 던지는 시간을 가졌다.

조영일 서장은 승진자들의 어깨에 계급장을 달아주며 "영예로운 승진 임용을 축하드리고 어깨가 무거워진 만큼 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덕진경찰서를 빛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소민 기자

## 전북소방 6월 화재조사보고서 품질향상 영상포럼

**'화재 원인 더 정확하게'**

전북소방본부 6월 화재조사보고서 품질향상 영상포럼이 지난달 30일 개최됐다. '영상포럼'에는 도내 15개 소방서 화재조사관이 참석했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날 영상포럼을 통해 상반기 화재조사 추진 성과를 점검하며 현장 감식 역량 강화 실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 또한 화재조사 보고서 작성 사례를 공유하고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점검했다.



아울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화재조사 체계 구축 방안 의견 등이 오갔다.

특히 화재조사 학술대회(논문발표) 운영 개선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소방본부 주관 TF팀 구성 △공동연구 활성화 △참가자 인센티브 부여 △시행·연구비 통합 편성 등 다양한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화재조사 학술대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일선 화재조사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 전주페이퍼·전주원파워 '건강한 조직문화' 교육

## 구성원 간 존중과 소통 기업경쟁력 기반 강조 현장 개선 방안 공유

국내 대표 제지기업인 전주페이퍼-전주원파워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위한 소통중심 근무환경 구축 교육을 지난달 29일 실시했다.

이번 조직문화 교육은 전주페이퍼-전주원파워 임직원 485명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이어졌다.

주요 교육 대상자는 △생산 현장 근무자 △사무직 직원 △주·야간 근무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은 한국인재경영교육원 강은미 대표 강사의 "상호존중과 양방향 소통으로 만드는 건강한 조직문화" 주제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조직 내 존중과 배려의 중요성 △세대 간 소통 방법 △효과적인 협업 방안 등 다양한 사례 등이다.

특히 강 강사는 강의를 통해 "구성원 간 신뢰와 원활한 소통이 안전한 근무 환경과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강 강사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중요성이 중점으로 공유됐다.

강 강사는 강의 이후 참여형 질의응답을 운영하며 구성원들의 현장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에 다양한 직군 서로의 생각 이해와 함께 공감의 기회 시간을 가졌다.

교육 참여 임직원들은 "상호존중과 배려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며 "조직 내 소통 방식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높이 만족했다.

전주페이퍼와 전주원파워는 조직문화 개선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파트장 이상 리더와 임원, 팀장을 대상으로 한 △AI 시대



리더십 변화 △현장 혁신 사례 △변화 관리와 세대 간 소통 등을 주제로 리더십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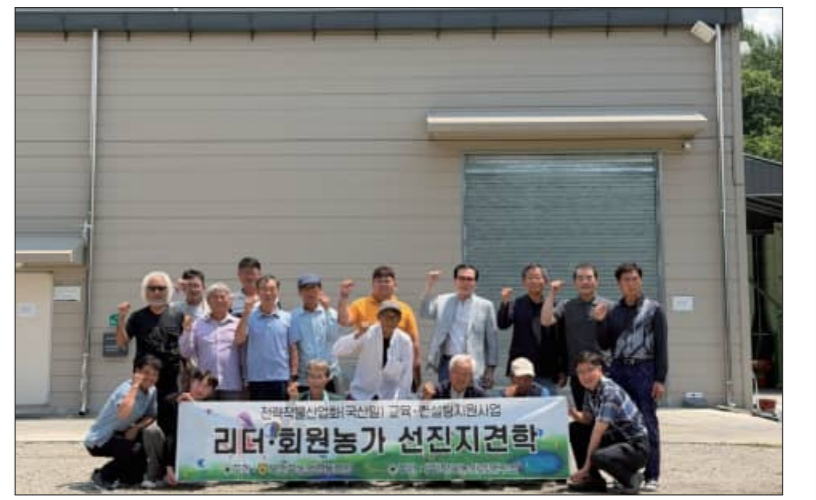
전주페이퍼 관계자는 "상호존중과 소통은 안전하고 건강한 조직문화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전주페이퍼>

한편 1965년 설립된 전주페이퍼는 국내 최대 신문용지 제조기업으로 전주에 본사를 두고 있다.

최근 신문용지 중심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골판지 등 패키징 소재 분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종합 제지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사진=북전주농협>

## 북전주농협 "밀 생산농가" 오랜 숙제 해결

### 정부비축사업 참여 농업인 시름 '해소'

북전주농협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에 의한 전북지역 밀 생산농가들의 시름이 사라졌다.

지난달 30일 이우곡 북전주농협 조합장은 안정적인 국산밀 정부비축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 방안에 대해 강도 높은 의견 등이 오갔다.

관련해 이우곡 조합장은 "밀 생산 농가들의 생산부터 수매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국산밀 품질 경쟁력 향상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 및 식량자급률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밀 재배농가들은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편 밀 생산농가 정부비축 참여는 새로운 기대 가치로 이어지고 있다.

/김영태 기자

## 김제신협 정OO 주임 로맨스스캠 피해 예방 공로 인정

### 김제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 수여

최근 김제신협 정OO 주임이 신중 금융사기 범죄 '로맨스스캠' 피해를 예방하며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에 정 주임은 허성수 김제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김제경찰서는 "김제신협의 신속한 대응 이모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지인 오정오로 이미 1차 송금을 진행한 상태에서 추가 송금 위해 신협을 방문해 정기에탁금을 중도 해지하고 자금을 이체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정OO 주임은 평소 거래 패턴과 다른 점을 발견하고 금융사기 가능성을 의심해 즉시 112에 신고했다.

당시 조합원은 "사기가 아니다"라며 피해 사실을 부인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정다운 주임 지속적인 설명과 설득 끝에 자신이 로맨스스캠 범죄에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번 사례는 김제신협 고객 자산 약 500만원 상당을 차단하며 으뜸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김제경찰서는 "김제신협의 신속한 판단이 결함돼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백강석 김제신협 이사장은 "앞으로도 금융사기로부터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조합원의 든든한 금융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정읍시, 수산물 동물용 의약품 사용 안전 지도·점검

### 여름철 안전 먹거리 제공 양식장 15곳 대상 합동 점검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여름철 수산 질병을 막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수산연구과와 함께 지역 내 수면 양식장 15곳을 대상으로 수산물 의약품 사용 합동 점검을 마쳤다.

수온이 본격적으로 오르는 여름철에는 수산 질병 발생 위험이 커진다. 이에 시는 양식장 안에서 동물용 의약품이 오남용되는 상황을 미리 차단하고자 현장 지도를 기획했다.

점검 대상은 관내 양식장 가운데 지난해 지도와 점검 실적이 없었던 15곳으로 정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수산질병관리사 등의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적정 사용 여부 △미승인 수산물 동물용 의약품 사용 및 휴약기간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 및 보관 여부 △의약품 사용 기록부 작성 실태 등이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계도 조치했다.

또한 양식 어업인들이 스스로 안전



<사진=정읍시>

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수산물 동물용 의약품 사용 10대 수칙'을 바탕으로 올바른 약품 사용법을 곁들여 안내했다.

시는 이번 상반기 점검 결과와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여름철 질병 예방의 핵심은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다각적인 지원과 지도를 펼쳐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여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 전북TP-군산대 '이차전지 고도분석 컨퍼런스' 개최

## 이차전지 소재분석 산학연 '교류의 장' 마련

전북TP와 국립군산대학교 RISE사업단이 공동 주관한 '제1회 2026 이차전지 고도분석 컨퍼런스'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Thermo Fisher Scientific Korea 수서오피스에서 마무리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핵심이 되는 소재 분석 및 고도분석 기술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

며 산·학·연 전문가 간 기술 교류와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컨퍼런스에서 △이차전지 소재의 특성평가 △열화 원인 분석 △분석 표준화 등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주요 기술 이슈를 중심으로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29일 이차전지 소재 분야 고도분석 장비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튜토리얼 세션이 진행됐다.

이에 참가자들은 소재 특성분석, 미세구조 분석, 원소 분석, 분광 분석 등 실제 연구·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다

양한 분석장비와 응용 사례를 공유했다.

30일 이차전지 소재분석 산업 동향과 고도분석 기반 소재분석 및 열화해석을 주제로 한 기술 세미나가 이어졌다.

이어 대학·연구기관·기업 전문가들은 이차전지 소재 분석 표준화, 산업화 전략, 소재 열화 메커니즘 해석 등 관련 분야의 주요 기술 동향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 장비관리자 교육과 연계해 운영되

면서 분석장비 활용역량 강화와 전문인력 간 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최신 분석장비 기반의 소재 특성평가, 열화 메커니즘 해석, 표준화 전략 등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핵심 기술을 공유하며 향후 공동연구와 기술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전북TP와 국립군산대학교 RISE사업단은 이차전지 고도분석 분야의 기술 교류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분석기술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 농촌진흥청 '박과 유전자원 현장 평가회'

## "우수 박과 유전자원 선별 이고 분양 신청 받는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우수 형질을 가진 유전자원이 육종 현장에서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오늘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박과 유전자원 현장 평가회'를 연다.

현장 평가회에서는 농업유전자원센터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수집해 보존하고 있는 수박, 여주, 호박 유

전자원 중 219자원을 선보인다.

수박은 덩굴쪄김병 저항성 수박, 탄저병 저항성 야생종 수박자원을 비롯해 튀르키예, 짐바브웨 등 35개국 원산인 181자원이 공개된다.

여주는 중국, 미얀마 등 6개국에서 수집한 16자원이 전시된다.

호박은 조선호박, 맷돌호박, 동이호박 등 한국 재래종 호박 22자원이 평가받는 다.

이날 종자 업체, 육종가, 농촌진흥기관 등 관련 연구자들이 참석해 현장에서 직

접 유전자원을 관찰하고 농업 형질을 평가해 신종종 육성에 활용할 우수 자원을 선별한다.

현장 평가회에서 소개된 유전자원을 분양받고자 하는 기관이나 연구자는 씨앗은행에서 ①분양신청서 ②자원목록 ③분양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고종철 센터장은 "유전자원은 미래 농업 경쟁력을 높일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현장 평가회에서 선별된 자원들이 품종 육성에 현장에서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사진=농진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주상의-몽골달란자드가드市 '기업상담회' 열어

## 전북기업 판로확대 및 경제협력 가능성 모색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지난달 30일 전북기업 판로확대 및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몽골 달란자드가드市 경제협력 교류회 및 기업상담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지난 2월 8일 전주상공회의소와 몽골 달란자드가드市가 체결한 경제·산업 분야 교류 확대 및 몽골 유

학생의 안정적인 고용·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최트 데네더르지 몽골 달란자드가드市 시장과 오치르바트 다바체렌 남고비주 상공회의소 회장, 몽골 기업인 등 40여명이 방한했다.

이날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전북지역 기업인 6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 교류의 시간을 갖고 양 지역 간 경제협력 교류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 김기수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등 도내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해 양 지역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 확대와 기업 교류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이어 진행된 전북-몽골 상생협력 기업상담회는 식품·바이오테크, 신재생에너지, 건설·건축자재, 유통업, 전기·금속 관련업, 관광 및 기타 서비스업 등 6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양 지역 기업들은 제품·기술 소개와 상담을 통해 몽골 현지 수요 및 유통 여건을 확인하고 수출·유통·투자 등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몽골 달란자드가드市는 전북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며 경제·산업 분야 협력 기반을 넓혀가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북과 몽골 기업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수출·유통·투자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 NH농협은행 전북본부 "ESG경영 실천"

## 사회공헌활동 이어 농업인들에 큰 '박수'

"농협은행은 농업·농촌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임직원들이 ESG경영 실천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깨끗한 농촌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장길한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 그리고 임직원들은 지난달 30일 완주군 이서면 소재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와 함께 주변 영농폐기물을 수

거하며 ESG경영을 실천했다.

특히 이날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전 직원들의 ESG경영 실천은 영농일손돕기 및 영농폐기물 수거가 핵심이다.

앞서 NH농협은행 장길한 본부장은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NH그린액션' 등 다양한 사회공헌을 통해 ESG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농업·농촌 환경 조성 위해 흘린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임직원들의 구슬땀은 농업인들과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에도 한몫이 됐다.

/김영태 기자

# 전북교육청, 8600만 원 들인 '스피드게이트' 철거

2년 6개월 만에  
지하주차장 보관  
설치·철거에  
8885만 원 투입

내달 2일 전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취임을 앞두고, 전북교육청 1층 로비에 설치됐던 스피드게이트(출입통제시스템)가 철거됐다.  
수천만 원의 혈세를 들여 설치한 보안 시설을 불과 2년 6개월 만에 떼어내면

서, '열린 행정'이라는 정무적 메시지와 '예산 매몰'이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80만 5,000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023년 12월 총 8,604만 5,000원을 들여 분관 1층 로비 2곳에 설치했던 보안 장비를 모두 철거해 결과적으로 기기 설치와 철거에만 약 8,885만 원의 예산이 매몰됐다.

현재 보안 장비는 본청 지하주차장에 보관 중이다.  
이번 철거는 '소통'을 강조하는 신임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전호성 당선인은 "청사는 도민을 위한 공간인 만큼 불필요한 장비는 낮추고, 대신 필요한 보안은 더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며 "열린 행정과 신뢰받는 교육청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번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향후 청사관 리실과 안내데스크에서 방문자의 목적을 직접 육안으로 확인해 출입을 안내하고 비상시 비상계획담당관 주관하에 각 부서별 방호 인력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9,000만 원에 육박하

는 자동화 시스템을 단기간에 폐기하고 다시 인력 동원식 수동 방호로 회귀한 것을 두고 보여주지식 소통 행보를 위한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취임 전 보여주기식 소통 이미지를 위해 9,000만 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된 말쑥한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뜯어내고 다시 직원들이 출입지를 통제하는 과거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이자 행정력 후퇴"라고 지적했다.

/최성민 기자



<사진=순창군>

## 하야시다 리코, 순창오픈 정구대회 2관왕

개인·혼합복식 최정상

'대한민국 정구(소프트 테니스 대회)의 메카' 순창군에서 펼쳐진 스포츠 열전이 전 세계 정구인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순창군은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순창군 공설운동장 실내 다목적구장에서 열린 '2026 순창오픈 정구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대한정구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실업정구연맹과 전북정구협회가 공동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국내 36개 팀과 필리핀, 태국, 인도 등 8개국에서 80여 명의 외국인 선수를 포함해 총 300여 명이 참가하며 국제적인 규모로 치러졌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빛난 최고의 스타는 단연 순창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여자정구팀 소속의 하야시다 리코 선수였다.

하야시다 선수는 여자 개인단식에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혼합복식에서도 최정상에 올라 '2관왕'의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군은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대내외에 확고히 각인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대회 기간 동안 국내외의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순창에 체류하면서 지역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이 활기를 띠는 등 메가 스포츠 이벤트 개최에 따른 지역 경제 파급 효과도 톡톡히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하야시다 리코 선수가 2관왕을 차지하며 순창군 직장운동경기부의 자력을 보여줘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에 전념하고 좋은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광저우AIO미술관 문화예술 협력

중국 국제교류 활성화 기대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은 지난달 27일 중국 광저우의 AIO미술관과 전시, 학술 연구, 예술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시 교류 △학술연구 협력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미술관 운영 정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AIO미술관에서 개막한 김병종 화백의 개인전 'Kim Byungjong: Fantasy of Life'를 계기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과 중국을 잇는 지속적인 문화예술 교류 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

에서 상호 협력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전시 개막식에는 주광저우 프랑스총영사 로랑 르고텍을 비롯해 프랑스 외교·문화계 인사와 중국 문화예술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제적인 문화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AIO미술관은 중국 광저우에 위치한 연면적 약 4,500㎡ 규모의 국제 현대미술 연구·전시·교육기관이다.

미술관 건물은 1914년 건립된 예폴 데 보자르 양식의 건축물로, 뛰어난 역사성과 건축미를 인정받아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동양미술 연구와 국제교류를 활발히 추진하며 세계 각국의 작가들을 소개하는 국제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허정선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장 AIO미술관 관장은 "김병종 화백의 예술세계를 매개로 한·중 문화예술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양 기관의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남원시>

한편,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은 지난해 김병종미술상을 제정한 데 이어 세계와 소통하는 미술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제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남원=김종원 기자

## 정읍스포츠클럽유소년축구단 전북축구대회 우승컵 거머쥐

초등부 3·4, 5·6학년 동반 우승 '쾌거'

정읍스포츠클럽 유소년 축구선수단이 전북특별자치도 시군구 유소년 축구대회에 출전해 초등 3~4학년부(10세 이하)와 5~6학년부(12세 이하)에서 모두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전주시축구협회가 주최하고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난달 27일 전주 덕진체력공원 축구장에서 열렸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체육회가 후원한 가운데 도내 12개 시군구에서 18개 팀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정읍시에서는 총 25명의 선수가 출전

해 그동안 땀 흘려 훈련한 기량을 마음껏 뽐냈다.

경기 결과 정읍스포츠클럽은 출전한 두 개 연령대 부문에서 모두 정상에 올랐다.

초등 3~4학년부 선수들은 순창군, 덕진구, 무주군을 차례로 제압했다.

이어 결승전에서 익산시를 만나 6대 1로 크게 이기며 우승을 차지했다.

초등 5~6학년부의 활약도 빛났다. 임실군, 완산구, 장수군을 연달아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는 김제시를 3대 1로 누르고 동반 우승의 마침표를 찍었다.

정읍스포츠클럽 관계자는 "이번 대회에서 동반 우승을 차지해 매우 기쁘다"며



"매 훈련마다 열심히 임해준 선수들과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주시는 이학수 정읍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진=정읍시>

정읍시장은 "이번 대회에서 동반 우승을 차지해 매우 기쁘다"며

/정읍=김정민 기자

## 전북문화관광재단, 전주·청주 작가 교류전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추진하는 '2026 우수기획전시 지원사업'에 선정된 교동미술관이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8월 2일까지 기획전시 '기억과 생산: 사라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것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단이 추진하는 '우수기획전시 지원사업'은 도내 민간 문화시설의 기획 역량을 높이고 도민이 일상에서 수준 높은 시각예술을 향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전시는 전주와 청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업 속에 축적된 기억과 경험이 만나 새로운 관계와 의미를 만들어가는 교류전이다. 전시에는 전주와 청주에서 활동하는 작가 18명이 참여하며, 회화·조각·설치·영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약 40여 점을 선보인다. 참여 작가들은 각자의 지역적 경험과 예술적 시선을 바탕으로 작업을 펼치며, 개별 작품

이 하나의 흐름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프로젝트형 전시를 구현한다.

특히 이번 전시는 교동미술관 본관 2전시실과 2관 전시실 두 공간에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관람객은 두 전시 공간을 오가며 각 작가의 시선과 경험이 담긴 작품들을 자연스럽게 마주하고, 서로 다른 매체와 표현 방식이 어우러지는 전시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이번 전시는 지역 간 예술 교류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기억과 경험이 만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는 뜻깊은 전시이다"라며, "앞으로도 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공간의 우수한 콘텐츠가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더욱 폭넓게 소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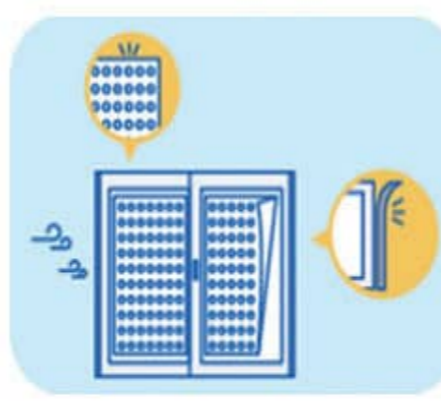
한편 자세한 사항은 교동미술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 일상 속(가정, 직장에서) 온실가스 줄이는 방법



안 쓰는 방 전등끄기



북북이나 문풍지로 따듯한 집 만들기



텀블러나 개인컵을 사용 해요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요



## 익산시 '패밀리 드림패키지' 저소득 가구 가족 행복 응원

익산시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가와 문화생활을 누리기 쉽지 않은 저소득 가정에 특별한 추억을 선물한다.

익산시는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40가구를 대상으로 '패밀리 드림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각 가정의 선호도를 반영한 가족여행과 웰컴키트 제공, 가족사진 촬영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가족이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신익산화물터미널 권준하 대표의 후원으로 추진된다. 지역사회를 위한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온 권 대표의 후원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경제적 이유로 가족여행이나 문화생활을 쉽게 누리지 못했던 가정에 이번 사업이 소중한 추억과 새로운 희망을 선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채장장애' 등록 신청 접수 개시

군산시는 오늘부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채장장애'에 대한 장애등록 신청을 받는다.

채장장애는 인슐린 분비 기능 저하로 장기간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장애인으로 인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로써 기존 15개였던 법적 장애 유형은 채장장애가 추가되면서 총 16개 유형으로 확대된다.

채장장애 등록 대상은 단순 당뇨 환자가 아닌, 6개월 이상 다화인슐린주사요법을 지속하거나 인슐린펌프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 중 혈액검사 등을 통해 채장의 내분비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확인돼 내과(내분비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내분비내과) 전문의로부터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로, 채장이식을 받은 사람 또한 장애등록이 가능하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소득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장애인연금 및 수당지원 등 각종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요금 감면 및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경화 경로장애인과장은 "그동안 극심한 고통과 생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 정읍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30명 투입

정읍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고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늘부터 30명 규모의 하반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현장에 투입한다.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시는 지난달 25일 시청 단풍회의실에서 정읍경찰서와 함께 방지단원 30명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 교육을 진행했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막고 단원들의 포획 대응 능력을 높이려는 취지다.

하반기 피해방지단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을 이어간다. 전염병 전파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야생멧돼지와 농작물을 크게 훼손하는 고라니를 집중적으로 쫓아낸다. 무엇보다 인명 사고 예방을 위해 총기 사용 금지 구역인 국립공원을 비롯해 인가나 축사로부터 100m 이내인 장소에서는 포획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

시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체계적인 교육과 철저한 관리로 포획 활동을 추진해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서 '관계성 범죄' 대응 역량 강화

## 관내 시내권 지구대 최일선 현장 방문 교육 촘촘한 치안망 구축

군산경찰서는 최근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촘촘한 피해자 보호망을 구축하기 위해 관내 지역경찰관 대상으로 지역경찰 현장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순회 교육은 군산경찰서 이공수 여성청소년계장, 관계성범죄 및 피해자 보호 담당 경찰관이 참석해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피해자와 가장 먼저 대면하는 최일선 지역경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건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서는 시내권 주요 지역관서인 △수송지구대 △나운지구대 △은파지구대 △서해지구대 △경장지구대 △개북파출소를 순차적으로 직접 방문해 맞춤형 교육을 전개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관계성 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 및 피해자 보호망 구축을 위해 '현장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사진=군산경찰서>

주요 교육 내용은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비롯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접근 차단 위한 '긴급입시조치' 및 '잠정조치' 적극 활용 △피해자 맞춤형 신변 보호 조치 등 실무 중심의 지침(매뉴얼) 공유로 이루어졌다.

특히, 초기 현장 조치의 미흡함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관계성 범죄의 특성성을 감안해, 현장 경찰관이 주저 없이

적극적인 법 집행과 피해자 보호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실전 사례 중심의 교육이 진행됐다.

군산경찰서 임정민 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지역경찰의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보호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 정읍시, 지방세 징수 평가 '우수'

## 조세 정의 실현 인센티브 900만원 확보

정읍시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성과 보상금(인센티브)으로 조정교부금 900만원을 확보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 운영 실적을

분석해 우수기관을 가려냈다.

평가는 체납 지방세 징수율, 재산 공매 건수,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실적 등을 비롯한 9개 항목에 걸쳐 이뤄졌다.

그동안 시는 재원 확보와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징수 행정을 추진했다.

특히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재산 공매, 지역 의 고질 체납자 징수 등 일관되고 특심 있는 정책을 펼쳤다.

아울러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꾸준히

확인(모니터링)해 부동산과 금융 자산 압류, 채권 예금 추심 등 다각적으로 체납액을 가뒀던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납세 편의를 돕고 합리적인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더욱 신뢰받는 공정한 세무 행정을 펼쳐 안정적인 세수 확충과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시, 디지털 청렴 행정 박차

## '청렴On 이음 플랫폼' 참여형 청렴 시책 추진

군산시가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On 이음 플랫폼'을 새롭게 마련하고 본격적인 디지털 청렴 행정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이번 '청렴On 이음 플랫폼'은 올해 4월부터 구축해 운영 중인 '청렴On 포인트 제도'를 비롯해 새롭게 도입되는 디지털 청렴 시책들을 '청렴On'이라는 브랜드로 묶어냈다. AI 챗봇, 청렴 콘텐츠 제작·제공, 그리고 AI 청렴 포스터 공모전 등 각각의 개별 시책들을 '청렴On' 브랜드로 연계함으로써, 공직자의 청렴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투명

성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청렴On 이음 플랫폼' 내에 새롭게 도입된 '청렴On AI 챗봇'은 청렴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와 각종 사례집, 행동강령, 교육자료 등 청렴과 관련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해 AI가 질의응답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새울행정시스템 내 퀵링크를 통해 즉시 접속해 필요한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업무 중 발생하는 청렴 관련 궁금증을 빠르게 해소하고 공직자들의 청렴 가치 내재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감사담당관은 '청렴 스튜디오' 게시판을 새울행정시스템에 신설하고, 7월부터 AI 기술을 활용해 직접 제작한 '청렴 웹툰'을 주 1회 게재할 계획이

다. 딱딱하고 어려운 청렴 교육에서 벗어나 친숙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통해 직원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청렴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향후 AI를 활용한 청렴 영상 등으로 콘텐츠의 폭을 더욱 넓혀갈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하반기에 'AI 활용 청렴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해, 직원들이 직접 AI를 활용해 청렴 메시지를 담은 포스터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참여형 청렴 문화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시는 이번 '청렴On 이음 플랫폼'의 구축을 통해 청렴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스마트한 청렴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지승길 기자

# 익산시, 동물헬스케어 산업도시 '도약'

## 차세대 동물약품 규제자유특구 지정

익산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차세대 동물약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며 동물헬스케어 산업도시 도약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익산시는 차세대 동물약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17개 기업·기관과 함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신기술 기반 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완화하고 실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구는 익산·정읍 일원 3,038㎡ 부지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264억 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익산시는 2㎢ 규모 특구 구

역을 중심으로 △동물용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신약 안전성·유효성 심사 규정 실증 △자가백신 품목 확대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정읍에서는 동물용의약품 독성시험 제품 항목 면제 실증 사업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특구 지정은 익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동물헬스케어 산업 육성 정책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전망이다.

시는 2020년부터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산업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왔다. 2024년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시제품 생산시설과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지나해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돼 2029년까지 '익산 동물용의약품 산업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한

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과 임상시험, 시제품 생산, 효능·안전성 평가, 자원관리까지 산업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원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익산시는 기존 연구개발·생산 기반에 실증 기능까지 더해지게 됐다.

시는 실증사업을 통해 동물용 신약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일부 질병에만 적용되던 자가백신의 활용 범위를 넓혀 신·변종 가축 질병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부터 실증, 생산, 사업화로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생태계 구축에 더욱 탄력이 불을 전망이다. 아울러 백신의 국산화를 촉진하고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과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투명한 축산물 유통 이끈다

이력표시라벨지구입비지원

정읍시가 국내산 축산물의 투명한 유통을 돕기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라벨지 구입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축산물 이력관리 대상인 소, 돼지, 닭, 오리고기를 거래하거나 포장 처리한 실적을 신고한 식육포장처리업소다.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에 전산 신고를 마쳐야 한다.

업체당 지원금은 최대 150만원이다. 단일 업체가 소·돼지고기와 닭·오리고기를 각각 전산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최종 지원 대상 업소와 확정 금액은 심사를 거쳐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오는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 축산과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축산물 이력관리 전산 신고를 유도해 유통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소비자가 손쉽게 이력을 조회하고 안심하며 고기를 살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시, 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 집중 단속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군산시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니코틴을 포함한 전자담배가 담배에 포함되고 관련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관계 기관 합동 점검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존 단속 대상이었던 일반 권련(연초)은 물론, 니코틴이 포함된 권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 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흡연실(흡연구역)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단속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금연구역 내에서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산시 보건소장은 "이번 법 개정은 연초 담배뿐만 아니라 모든 니코틴 전자담배까지 관리 체계에 포함될 것의 의미가 있다"라며 "계도기간이 끝난 만큼 강화된 담배 규제 사항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금연 환경 조성 및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 "골목상권 살린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정읍시가 지난 1월 전 시민에게 지급한 3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 가운데 99.4%인 298억원이 지역 상권에서 소비되며 사업이 마무리됐다.

전체 지급 대상자 10만 1527명 중 98.5%인 10만 299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소매업이 19.9%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일반 음식점 14.4%, 음식료품 12.2%, 주유 10.3%, 의료 6.1%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용액의 86.4%는 소매업, 음식점, 미용업 같은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소비됐다. 대형 유통 업체 사용률은 13.6%에 머물러 지원금 대부분이 지역 내 순순환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는 2024년부터 2년 동안 강도 높

은 재정 혁신과 예산 절감으로 확보한 재원을 시민에게 돌려준 결과다.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는 신속하고 공정한 배부를 위해 행정력을 모았다.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끝내갔다.

이학수 시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회복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시 '시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군산시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4개 읍면동에서 '2026년 군산시 권역별 시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학교는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군산시 시민참여 예산 제안사업 공모 기간에 맞춰 시민들이 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준비됐다.

특히 올해는 군산시청에서 일괄 운영하던 기존 교육방식 대신, 시민들의 참여 편의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읍면동 교육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교육은 서군산·동군산 권역으로 나누어 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대야면, 해신동, 조촌동, 소룡동)에서 진행되며, 참여예산에 관심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주요 교육내용은 △시민 제안사업 우수사례 △시를 활용한 제안서 작성 실습 등으로 구성되며,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예산센터장인 최승우 강사가 진행한다.

교육은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각 2시간씩 권역별로 진행된다. 2일에는 오전 소룡동, 오후 해신동 행정복지센터 강당에서, 3일에는 오전 조촌동, 오후 대야면 행정복지센터 강당에서 각각 교육이 실시된다.

읍면동별 교육장소는 다음과 같다. 소룡동 교육은 옥유동, 옥서면, 나운1동, 나운2동, 나운3동, 소룡동, 미성동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해신동 교육은 옥도면, 해신동, 월명동, 신흥동, 삼학동, 중앙동 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

조촌동 교육은 옥산면, 회현동, 흥남동, 조촌동, 경안동, 구암동, 수송동, 대야면 교육은 임피면, 서수면, 대야면, 개정면, 성산면, 나포면, 개정동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홍상훈 기획예산과장은 "시민참여 예산학교를 통해 시민들이 지역 현안을 스스로 발굴하고 예산 제안까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교육에 참여해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 부안군, 벼 병해충 선제 대응 추진

## 총사업비 15억원 투입 벼·콩 재배 농가 대상 기본방제 약제 지원

부안군은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벼와 콩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ha당 12만 5000원 상당의 방제 약제를 지원하는 농작물 병해충 기본방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조와 자부담이 각각 50%인 사업으로 농업인이 지역 농협을 통해 필요한 방제 약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농가별 재배 여건과 병해충 발생 상황에 맞게 맞춤형 방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사업 대상은 벼, 콩, 가루쌀 재배 농업인 전체 대상이며 지원 약제는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벼 및 콩 병해충 방제 약제 중에서 읍·면별 약제선정심의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선정된다.

지원 약제는 벼의 주요 병해인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흰잎마름병, 세균벼알



부안군은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벼와 콩 재배 농가 대상 농작물 병해충 기본방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부안군>

마름병, 깨씨무늬병 예방에 활용되는 살균제와 함께, 밀가루, 나방류, 노린재류, 응애류 등 주요 해충 방제용 살충제를 포함하고 있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는 이와 함께 상반기 약 14억원 규모의 육묘상 처리제 지원을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벼 병해충 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병해충은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적기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업인들께서는 방제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유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김제시, 집중호우 대비 현장점검

### "시민 안전 최우선" 침수·재해 대응체계 점검

김제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지난달 30일 실시된 이번 현장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과 재해 대응체계 점검을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남부시장 배수장, 용암천 월봉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 등 4곳을 순회하며 침수·재해 대응체계 점검을 실시했다.

남부시장 배수장은 집중호우 시 육산동 일원의 우수를 신속하게 배제해 도심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요 방제시설로, 현재 수중펌프 2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배수장 운영 현황과 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집

중호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어 방문한 용암천 월봉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공덕면 일원 축제 및 보축 총 연장 5.5km 구간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우기철 공사 현장 안전관리 실태와 집중호우 발생 시 피해 예방 대책, 공적 추진 현황 등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와 극한 강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한전 전북본부 임직원 부안군에 1000만원 기탁

부안군은 지난달 29일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윤여일 본부장과 임직원들이 지역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을 모아 고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북본부 임직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흥사랑기부제에 동참하며 2년 연속 1000만원 기부를 실천했다.

이번 기부로 군에 전달한 누적 기부금은 2000만원에 이르며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이번 기부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부안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본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나눔과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윤여일 본부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부안의 발전을 응원하는 뜻을 모을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2년 연속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전북본부 임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소중한 기부금은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김제 용지면 주민자치위원회 옥수수 결순 제거 작업 실시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인근 텃밭에서 주민자치 특색사업인 '옥수수 행복 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옥수수 결순 제거 및 제조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업은 앞서 진행된 옥수수 모종 식재에 이은 생육 관리 활동으로, 원활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풍성한 수확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민자치위원 20여 명은 이른 아침부터 현장에 모여 옥수수의 생장을 방해하는 결순을 제거하고 밭 곳곳에 자란 잡초를 정리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무더운 날씨에도 위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정성껏 작업에 참여해 훈훈한 분위기를 더했다.

김영환 주민자치위원장은 "더운 날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위원들의 작은 정성과 노력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군지사협, 농촌 도배·장판 교체 재능기부 사업 전개

고창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농촌마을 재능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배·장판 교체 사업을 진행했다.

고창군 지사협은 14개 읍·면 지사협을 통해 대상 가구를 발굴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가구별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사협 위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재능나눔 활동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 돌봄 안전망 구축에도 의미를 더했다.

정찬원 민간공동위원장은 "주거환경은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한 농촌마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고창군, 취약계층 복지 강화 2(題)

## 저소득층 영아 양육 지원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고창군은 오늘부터 저소득층 영아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했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 가구의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돼 보다 많은 가정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만 2세(24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이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

되면 기저귀 구매비 월 9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제분유 구매비 월 11만원도 함께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다.

유병수 보건소장은 "이번 소득기준 완화로 취약계층 영아 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육 부담 경감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독거노인 집중 안부 살핌

### 85세 이상 어르신 가정방문·집중 점검

고창군 아산면행정복지센터가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관내 장수 독거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집중 안부 확인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폭염에 특히 취약한 고령의 홀몸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산면 맞춤형복지팀은 무더위에 취약한 만 85세 이상 장수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찾아가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살폈다. 또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상세히 안내했다. 특히 폭염 특보 발효 시

△낮 시간대 야외활동 및 발열 자체 △충분한 수분 섭취 △인근 무더위쉼터 활용 등 여름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며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안전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왔다.

정재택 아산면장은 "올 여름 극심한 무더위가 우려된다"고 말하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지내실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안부 확인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가동해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아산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국가예산 확보 '총력'

## 기획처 차관 만나 정부안 최대반영 혼신

정성주 김제시장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임기처 기획예산처 차관을 만나며 핵심사업들의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집중 설득활동을 펼쳤다.

정 시장은 앞서 지난달 22일 기획예산처 예산심의관 등 예산 책임자들을 만나 사업을 건의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기획처를 다시 찾은 것으로, 그야말로 숨 가쁜 광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새만금 녹지면적 확충을 위한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사업의 신규 반영, 새만금 수질개선 및 도심 악취 해소를 위한 △용지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 김제 주력산업인 특장산업의 대형 건설기계 분야 진출을 위한 △특장산업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사업의 요구액 전액 반영 등을 건의하며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정 시장은 "국가예산 확보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돌파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성장을 실현시킬 가장 강력한

동력인 만큼, 김제시 주요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건의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9월 초까지 이어질 기획처 심의 동향을 예의주시해 정부안에 한 사업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예산안은 기획예산처의 분야별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되며, 제출안은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등을 거쳐 12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 부안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 총 45대 보급 계획 대기환경 개선 기대

부안군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친환경 차량을 보급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 상반기 전기자동차 총 102대(승용 68대, 화물 34대)의 민간 구매를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는 총 45대(승용

30대, 화물 15대)을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점수일 기준 60일 이상 연속해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이며 오는 6일부터 전기자동차 사업 물량 소진 시까지 판매 대리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 올해 신설된 전환지원금은 개인이 3년 이상 운용한 내연기관차를 판매 또는 폐차 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지급되는 추가 지원금으로 차종별 최대 13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금 준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누리집 고시·공고 및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 자동차의 관심과 함께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 관내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많은 군민들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김제시, 신풍동 치매안심마을 환경 개선

김제시 치매안심센터는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김제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신풍동 치매안심마을 치매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치매환자의 낙상사고 예방과 일상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됐으며 치매환자 가정을 사전 방문해 주거환경과 안전 취약 여부를 확인 후, 지원이 필요한 8가구를 선정해 진행됐다.

신풍동 소상공인봉사단과 함께 가정 내 안전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럼방지 매트 및 미끄럼방지 양말을 제공했다.

특히 욕실과 현관 입구 등 낙상 위험이 높은 공간을 중심으로 안전환경 개선을 지원했다.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신풍동, 검산동, 성덕면 치매안심마을에도 안전환경 조성 지원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선정된 치매 환자가정에는 자원봉

# 순창군 기본소득, 전국 '시금석'으로

## 시범사업 5개월 성과 점검 제도개선 과제 농식품부 건의

순창군은 지난달 30일 청년문화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기본소득 추진단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지역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본소득 시행 5개월간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발굴해 제도 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농식품부 추진단, 순창군 관계자, 전문가, 주민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순창군은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공동체 참여 확대 등 긍정적인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건의했다.



<사진=순창군>

특히 △읍 사용 5대 업종 제조업 등 사용자 제도개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용자 제도 개선 △사회연대경제 조직 이용 확대 △실거주 인정기준 표준화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개선 과제를 제안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 검토해 7월 중 시범사업 지원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성 복지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공동체 활력을 불어넣는 순창의 미래 성장 동력인 이 지난 5개월간의 성과로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남원 한옥전통호텔 '명지각 3관' 개관

총 57억 투입 9동 규모 조성 1·2관과 체임블러스터 구축

남원시는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남원 한옥체합조성사업 "명지각 3관"이 오늘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명지각 3관은 남원시 쌍교동 18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57억 원(도비 19.5억 원, 시비 37.5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454.9㎡, 지상 1층 9동 규모로 조성됐으며, 6객실 독립 객실을 갖춘 한옥 숙박 체험시설이다.

이 시설은 2022년 사업 착수 이후, 2024년 12월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1년 5개월간의 공사 끝에 완공됐다. 운영은 명지각 1·2관을

2024년 12월부터 운영 중인 ㈜스테이폴리오가 맡아 일관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주요시설은 지상 1층 9동으로 구성되며, 6객실(6인실 2실, 4인실 4실), 부속(스파시설) 2동, 창고 1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차장 9대와 개별 마당을 갖추고 있어 이용객 편의를 높였다.

남원시는 기존 명지각 1·2관과의 연계 운영으로 한옥 체임블러스터를 구축하고 인근 관광자원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남원립 객실을 갖춘 한옥 숙박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역 관광콘텐츠와의 연계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 '완주도시 알리미 홍보단' 어린이·청소년의원 11명 위촉

완주군 어린이·청소년의회(삼례권역)가 최근 완주군청소년수련관 3층 다목적실에서 '완주도시 알리미 청소년 홍보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어린이·청소년 의원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호심을 높이고 완주군의 다양한 정책과 문화, 관광, 축제, 청소년 활동 등을 주도적으로 발굴해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완주군 어린이·청소년의회 삼례권역 의원들의 제안으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삼례권역 완주군 어린이의원 6명과 청소년의원 5명 등 총 11명이 홍보단으로 위촉됐다.

완주도시 알리미 청소년 홍보단은 앞으로 완주군의 다양한 정책과 지역 소식, 문화·관광 자원, 청소년 활동 등을 청소년의 시각으로 직접 취재하고 홍보하며 지역사회와 행정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유진 아동친화과정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주도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완주군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 완주군, '언니의 선물' 공모 선정 취약층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완주군 드림스타트가 대한적십자사가 주관하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인 '언니의 선물' 공모사업에 선정돼 관내 취약계층 아동 28명에게 230만 원 상당의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했다.

'언니의 선물'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필수 위생용품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성장기 여성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관내 취약계층 아동 28명에게 1인당 8만 4,000원 상당의 보건위생용품 세트(6개월분)가 지원됐다. 지원 물품은 성장기 아동들이 위생용품 구입 부담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직접 가정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고 아동의 생활 현황을 살폈다.

지원을 받은 한 보호자는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꼭 필요한 물품이지만 매달 구입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컸다"며 "6개월분의 위생용품을 지원받아 큰 도움이 되었고, 마음이 한결 놓인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시, 한국실명예방재단 연계 운봉읍 어르신 무료 안과검진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지난달 30일 운봉읍 지리산커뮤니티센터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130여 명을 대상으로 눈질환 조기 발견 및 적기 치료를 위한 무료 안과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검진은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해 진행됐으며, 안과 전문의를 비롯한 재단 소속 직원과 남원시보건소, 운봉읍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참여했다. 검진은 △문진 △시력·굴절·안압 검사 △세극등 현미경 검사 △안저검사 △정밀 검사 등으로 이뤄졌다.

또한, 전문의와의 1대1 상담을 통해 눈 건강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돋보기, 안약, 인공눈물, 항생제, 눈 관리 관련 소책자 등을 제공했으며, 검진 결과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대상자에게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는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계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 순창군, 청렴도 향상 추진상황 점검

기관장 주재 청렴정책회의 보조금 행정 개선책 논의

순창군은 지난달 29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2026년 제2회 청렴정책 기관장 주재 회의'를 개최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와 반부패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영일 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부군수를 비롯한 국·실·과·소장 과 읍·면장 등 37명이 참석해 △2026년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이행 상황 △부서장 청렴공표제 실천과제 추진 현황 △청렴 추진 기반 제도와 △보조금 투명성 강화 기반 구축을 위한 개선과제 등을 논의했다.

군은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가운데 부서 협조가 필요한 핵심 지표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제고와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 이행 등 주요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부서장들이 자율적으로 추진 중인 '청렴공표제' 실천과제의 이행 상황을 공유하며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직원들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조직원화 조성과 불필요한 관행 개선 등 일상 속 청렴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부패 취약분야로 확인된 보조금 지원 분야의 개선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소통이 청렴도 향상의 핵심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부서별 특성에 맞는 1부서 1보조금 1청렴시책을 추진해 보조금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남원시, 도심숲속 물놀이 명소 2곳 개장

요천·교룡공원 물놀이장 운영 설비·수질 안전관리 강화

남원시가 여름철을 맞아 여름철 물놀이 명소 2개소를 오늘부터 본격 개장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심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요천 수경 물놀이장'과 푸른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교룡공원 산림욕장 물놀이장'으로 각기 다른 매력과 특색을 살려 여름철 남원을 찾는 가족에게 최고의 피서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요천 고수부지(요천 수경 음악분수 옆)에 위치한 '요천 수경 물놀이장'은 접근성이 뛰어난 도심 속 워터파크다. 유수풀, 어린이 물놀이장, 바다분수 등 총 9종의 물놀이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낮은 수심으로 조성돼 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피서객에게 안심맞춤이다. 주변의 관광시설과도 인접해 있어 물놀이와 함께 남원의 야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교룡산국민관광지 내에 위치한 '교룡공원 산림욕장 물놀이장'은 도심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친환경 물놀이 공간이다. 소나무 숲과 산책로가 어우러져 자연경관 속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인근에 조성된 교룡산 둘레길 산책코스와 황토길 맨발걷기 체험은 물놀이를 찾아온 가족들에게 자연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동시에 제공한다.

남원시는 본격적인 개장에 앞서 지난 6월 22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전기설비 전반 점검을 진행했고 운영기간 중 매일 설비 점검 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물놀이장 두 곳 모두 매일 용수를 교체하고 격주로 전문기관을 통한 철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할 예정이다.

물놀이시설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무료로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휴장한다.

/남원=김종원 기자

## 완주군, 삼례읍 1,226필지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완주군 삼례읍 신복지구 785필지(63만㎡)와 용전지구 441필지(22만 6,000㎡)의 지적재조사 경계가 결정됐다.

군은 최근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았던 지적을 바로잡기 위해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삼례읍 신복지구와 용전지구의 지적재조사 경계를 이같이 결정했다.

군은 그동안 토지소유자 임회를 통한 재조사 측량과 의견 제출, 경계 조정을 실시해 마무리한 뒤 경계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지적재조사 결과대로 심의·의결했다.

군은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총 1,226필지에 대해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고,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아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형진 열린민원과정장은 "경계확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완주군, 기업 찾아 인구정책 혜택 알린다

## 전입지원금 등 현장 홍보 기업·임직원 맞춤 지원 안내

완주군이 이달부터 관내 기업체를 직접 찾아가 인구정책 지원 혜택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홍보'를 추진하며 인구유입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번 홍보는 기업과 임직원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인구정책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기업체를 방문해 담당자와 임직원에게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며 정책 제강도를 높이고 혜택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기업체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은 '인구증가 유공자 전입지원금'이다. 매년 12월 말 기준 완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 이상 된 임직원이 있는 기관·단체·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전입 임직원 수에 따라 5명 이상 50만 원부터 100명 이상 500만 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을 차등 지급한다. 신청은 실적 기준일인 해당 연도 12월 말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임직원이 완주군으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다양하다. 타 시·군·구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전입한 세대에 지원하는 전입장려 지원금(로컬푸드 꾸러미 5만 원 상당·종량제봉투)을 비롯해 결혼축하금(세대당 500만 원), 출산장려금(첫째 200만 원·둘째 300만 원·셋째 이상 600만 원), 첫

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 원), 군 소재 대학 재학생 대상 전입학생 장학금(총 30만 원) 등이 지원된다.

특히 직원 한 명이 완주로 주소를 옮기면, 직원은 이 같은 생활 혜택을 받고 회사는 그 전입이 전입지원금 실적으로 인정돼 기업과 직원이 동시에 혜택을 받게 된다.

심미정 인구정책과장은 "좋은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알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기업체 현장 방문을 통해 지원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완주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 원), 군 소재 대학 재학생 대상 전입학생 장학금(총 30만 원) 등이 지원된다.

특히 직원 한 명이 완주로 주소를 옮기면, 직원은 이 같은 생활 혜택을 받고 회사는 그 전입이 전입지원금 실적으로 인정돼 기업과 직원이 동시에 혜택을 받게 된다.

심미정 인구정책과장은 "좋은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알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기업체 현장 방문을 통해 지원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완주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시, 시민건강증진 '4년 연속 최우수' 쾌거

##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2관왕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호평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지난달 30일 서울 GSE타워에서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관으로 개최된 '제18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관왕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대회에서 남원시는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최우수기관, △중점 추진 사업 영역(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우수기관으로 동시에 선정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며 시민 중심 건강증진사업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민 참여와 지역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중점 추진 사업 영역인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부문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남원시보건소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어르신들에게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

강상태 모니터링과 맞춤형 건강상담을 통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해 왔다.

남원시보건소는 지역의 핵심 건강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더욱 공고히 추진할 방침이다. 중앙년층을 타깃으로 '직장으로 찾아가는 절주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생활터 중심의 절주 사업을 강화해 고위험 음주율을 낮추는 데 집중한다.

또한,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을 확대하고 주민 주도 '건강리더'를 양성하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 완주군, 지역사회 현장 역량 강화 2(題)

## 완주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교육

완주시니어클럽이 여름철 폭염과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건강 위험을 예방하고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폭염 예방수칙 △핀드미 매개 감염병 예방 △교통 안전 사고 예방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 무더위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등 폭염 대응 요령과

## 학교마을강사 '레벨업' 프로젝트 시동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센터장 임성희)는 지난달 29일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 가족홀에서 '2026년 교육발전특구 학교마을강사 역량강화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관내 35개 기관 소속 학교마을강사 70여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지원내용, 마을강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마을강사 역량강화지원사업은 학교마을강사의 전문성 향상과 다양한 마을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설명회에서는 지원신청 절차, 지원영

역, 사용기준, 지원금 지급,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 제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앞으로 학교마을강사 인재를 통해 강사들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역량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마을교육을 활성화해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앞으로도 마을교육 활성화와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장수군, 읍면 의료급여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장수군은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읍·면 의료급여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의료급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료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읍·면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강화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의료급여 업무의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의료급여 제도의 이해(의료급여 연장승인 입수, 선택의료급여 기관 제도, 산정특례 제도 등) △의료급여 사업(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재가의료급여 사업 등) △행복이음 시스템 활용 방법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사례 중심의 교육과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업무 처리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적용 시 유의사항을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담당자들의 실무 대응 능력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 기반을 다졌다.

최훈식 군수는 "읍·면 의료급여 담당자는 대상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골프존카운티·골프존문화재단, 취약계층에 생필품 키트 전달

무주군 안성면 '골프존카운티'와 '(재)골프존문화재단'이 지난 30일 무주군에 1천만 원 상당의 생필품 키트 250상자를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생필품 키트는 즉석밥, 김, 라면 등의 식료품으로 구성돼 있으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7월 초까지 관내 경제적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서상현 골프존카운티 대표와 김영찬 (재)골프존문화재단 대표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할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골프존카운티는 지난 2022년부터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무주군에 생필품 키트를 기부해 오며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 진안군, 여름철 수족구병 확산 영유아 감염 예방 수칙 준수 당부

진안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여름철 대표 감염병인 수족구병이 영유아를 중심으로 지속 확산하고 있어 보호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집단생활 시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25주 차(6월 14~20일) 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1.2명으로, 18주 차 이후 7주 연속 증가하며 올해 처음 1,000명당 10명을 넘어섰다.

수족구병은 콕사키바이러스와 엔테로바이러스 등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주로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많이 발생한다.

특히 감염자의 침, 콧물, 가래, 대변 등의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기침·재채기 등 비말을 통해 전파되며 장난감, 놀이기구, 문손잡이 등 공용 물품을 통한 간접 접촉으로도 쉽게 감염될 수 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단체생활 시설에서는 더욱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수족구병은 예방백신이나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 올바른 손 씻기와 개인위생 관리가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외출 후와 식사 전후, 화장실 이용 후, 기저귀 교체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아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장난감과 놀이기구 등도 주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진안=전길빈 기자

## 무주군, 2050 미래비전 선포

###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 항공우주 중심도시 무주'

민선 9기 무주군이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항공우주 중심도시 무주'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2050 미래 비전'을 발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50년까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방침으로 △무주형 기본사회 실현, △항공우주산업 중심 미래산업 육성, △체류형 관광·휴양도시 조성, △정정가치 기반의 농업경쟁력 강화 등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난 황인홍 무주군수는 기본사회는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 확대, 통합돌봄 체계 구축, 빈집 재생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 의료·복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대로템'을 기반으로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조성하고 미래산업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관광과 농업을 지역발전의 양대 축으로 삼아 지역의 균형 있는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선 9기 무주군이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항공우주 중심도시 무주'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2050 미래 비전'을 발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무주군>

황인홍 무주군수는 "2050 미래 비전"은 군민과의 약속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최선"이라며 "앞으로 군민의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 항공우주산업 중심 도시로 우뚝 서 무주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살터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지난 3월 착수한 '무주군 미래비전 205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2026. 3)'을 통해 "2050 미래 비전"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으로, 대외적인 정책·환경 변화와 경제·국제환경

불안, 인구·지역 활력 위기, 상위계획·주민수요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무주지역 6개 읍면 특성과 환경, 여건에 맞는 미래의 무주를 그려나갈 방침이다.

무엇보다 환경에 대한 변화 대응력과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계획으로, 주민 설문, 전문가 자문, 주민공청회를 비롯한 주민참여연구단 운영 활성화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 임실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화재 막아

### 발에 있던 어린신 집에서 화재 자동 화재감지·신속 출동

임실군이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독거노인 주택 화재 발생을 조기에 발견해 큰 피해를 막은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사회 안전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화재를 진압한 소방관은 이번 사건이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로 응급관리요원의 빠른 대처를 꼽았다.

임실읍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9시 5분, 임실읍 신안리에 거주하는 김모 씨(90)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당시 김 씨의 발에서 일어난 화재가 화재 발생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나 독거노인 가정에 설치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가 즉시 작동했다. 화재감지기가 연기를 감지하자 시스템은 119와 응급관리요원에게 자동으로 화재 경보를 전송했다.

이제는 응급관리요원은 즉시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했으나, 김 씨는 발에 있어 화재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다. 더욱이 가스불도 잘 끄고 나왔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했지만, 응급관리요원은 집에 설치되어 있는 응급 장비의 게이트웨이에 영상통화를 걸어서 집 안에 연기가 자욱하고, 불꽃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이씨는 대상자에게 빨리 집으로 가보라고 알려주고, 119 출동 여부를 재확인한 후, 현장으로 출동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신속히 출동해 오전 9시 43분경 화재를 진압했

으며, 자칫 주택 전체가 전소될 수 있었던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 더욱이 산지락 쪽대기 집이고, 나무로 둘러 싸여져 있어서 산불로 번질 수 있었던 것도 막을 수 있었다.

이제는 응급관리요원은 "현재 임실군에는 1,033가구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설치되어 있다"며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대상이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장수군,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간담회

### 복지 현장 목소리 청취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논의

장수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최훈식 장수군수와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 현장의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보다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복지 수요 증가와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복지 행정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복지 대상자 증가에 따른 업무 부담과 복합적인 복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안,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지원 강화, 복지 민원 응대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의견이 폭넓게 논의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복지업무의 전문성

을 높이고 군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훈식 군수는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복지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도움이 필요한 군민들에게 더욱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임실군 'AI 디지털배움터' 교육 실시

### 온누리재가복지센터 복지사 대상 스마트 복지 서비스 제공

임실군 운암면은 지난달 26일 운암면 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관내 온누리재가복지센터 소속 복지사 24명을 대상으로 'AI 디지털배움터'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이번 과

건교육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최일선 돌봄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고품질 및 취약계층에게 더 스마트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AI 기술의 복지 현장 적용 방안, 스마트 기기 및 돌봄 활용 디지털 도구 실습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온누리재가복지센터 관계자는 "어르신들을 돌보며 디지털 기기 활용에 필요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면사무소에서 유익한 교육 자리를 마련해 주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장수군, 기말고사 대비 스터디캠프 운영

#### 전문 강사 1:1 학습코칭부터 식사·교통 지원까지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이사장 최훈식)은 지역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 향상과 시험 준비 지원을 위해 지난달 27일 장수군청 군민회관에서 '1학기 기말고사 대비 스터디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스터디캠프는 관내 학습 공간이 부족한 농촌 지역 학생들이 시험 기간 동안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터디캠프는 2024년 1학기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캠프에는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50여 명이 참가해 기말고사 대비 학습에 집중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재단은 장수군청 군민회관을 몰입형 학습공간으로 조성하고, 영어와 수학 등 주요 과목에 대해서는 전문 강사가 상주하는 '1:1 맞춤형 학습 코칭'을 운영해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높였다.

또한 참가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균형 잡힌 식사와 간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원거리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교통편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줬다.

특히 올해는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해 '진로·직무 심화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인문·사회, 과학, 예술, 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50여 명이 참가해 기말고사 대비 학습에 집중했다.



### 무주군, 공무원 퇴직자들 장학금 기부

#### "학생들의 꿈 키우는 동력 되길"

올해 상반기 무주군 공무원으로 퇴임하는 안성면 행정복지센터 개발팀 환경미화원 정인수 주무관, 무풍면 행정복지센터 개발팀 환경미화원 최복운 주무관, 보건의료원 식당 조리원 주희성 주무관이 지난달 30일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1백50만 원을 기부했다.

퇴직자들은 "오랜 시간 무주 군민들

의 따뜻한 사랑과 동료들의 관심 속에서 무탈하게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라며 "그동안 받은 사랑에 비해 작은 정성이지만 무주군 인재 육성에 든든한 힘이 되고 싶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더 큰 꿈을 품고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쳐나갈길 진심으로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주군 인재들을 응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최희호 기자

### 임실 강진면, 여름꽃 식재로 거리 조성

임실군 강진면(면장 김영숙)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화사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주요 도로변 화분에 여름꽃인 메리골드를 심으며 활기찬 여름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이번 꽃 식재는 무더운 여름철, 강진면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밝고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전하고, 주민들에게는 아름다운 경관을 통해 일상 속 밝은

이미지를 선사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영숙 강진면장은 "형형색색의 메리골드가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활력을 전하고, 무더위 속에서도 잠시나마 힐링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절마다 꽃 식재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진안군,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벤치마킹

진안군은 오는 13일 농어촌 기본소득 장수군을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 했다.

이번 방문에는 이경영 부군수를 비롯해 기획홍보실장, 기본소득TF팀장 등이 참석했으며, 장수군 부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부군수실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과정에서의 운영 노하우와 신청·접수 체계, 실거주 확인 방법, 민원 대응 사례, 지급 절차,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군은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현장에서 검증된 운영 방식을 공유받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행정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군은 오는 2일부터 10일까지 읍·면 등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의 취지와 신청방법, 지급 기준 및 사용자 등을 주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3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하고, 자격 확인과 심의를 거쳐 8월 말부터 첫 지급을 시작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김제여성새일센터 수료생  
“배움은 취업으로 나눈 행복으로”**

김제시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는 지난달 30일 반찬&수제도시락 양성과정 수료생들과 함께 ‘배움은 취업으로, 나눈 행복으로’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마무리 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전문 기술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수료생들의 사회참여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반찬&수제도시락 양성과정 수료생 16명은 지난달 2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김제낙원 요리학원에서 직접 반찬을 조리하고 포장하는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총 80가정에 반찬이 전달됐다.

수료생들은 교육과정에서 배운 조리 기술을 실제 봉사활동에 활용함으로써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공헌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제=온봉기 기자



**정읍 옹동면 직원들,  
작소마을 찾아 농촌 일손 보태**

정읍시 옹동행정복지센터 직원 10여 명은 지난달 29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작소마을 농가를 찾아 들깨 모종을 심으며 일손을 거들었다.

이번 봉사 활동은 옹동면 작소길 인근 농경지에서 진행됐다.

직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들깨 정식 작업에 동참해 농작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왔다.

도움을 받은 농가 주민은 “바쁜 영농철에는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걱정이 컸다”며 “면사무소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나서준 덕분에 큰 시름을 덜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옹동면 관계자는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직원들과 함께 나섰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어려움을 나누고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행정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농협, 익산 하포마을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농심전심 정신으로  
지역사회 상생 실천**

망성농협(조합장 박명남)과 NH농협 익산시지부(지부장 진현욱)는 지난달 29일 익산시 망성면 하포마을 마을회관 농촌정비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위해시설을 정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으며, 하포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꼽혀왔다.

이번 행사에는 박명남 망성농협

조합장과 진현욱 NH농협 익산시지부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생활환경 개선 활동에 함께하며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박명남 조합장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농심전심(農心天心)의 정신으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현욱 지부장은 “농협은 농업인



상 함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심전심의 가치를 바탕으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초록우산전북본부·드림스타트 완주군 취약계층 아동 지원**

**복합 지원 토대 마련  
생활지원금 1,740만원 전달**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와 최근 완주군청에서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와 보육비 등의 지원을 위한 생활지원금 1,74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완주군 드림스타트와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가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등으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례관리 지원

사업을 연계해 지역사회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돕고자 추진됐다.

드림스타트는 이번 후원금을 통해 치료교정 및 치료가 시급한 아동에게 의료비 400만 원, 이주배경 아동에게 보육비 240만 원, 건강악화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부모를 둔 아동에게 가족돌봄비 100만 원, 장애 아동 2명에게 발달치료비와 생필품비를 각 500만 원씩 총 5명에게 1,74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고창군자원봉사센터 어르신 나눔행사**

(사)고창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옥)는 지난달 29일 고수북합문 화체육센터에서 '2026 함께 전북, 착한 한끼 나눔'을 운영했다.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하고, 고창군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했다.

고수면 어르신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다양한 전문봉사와 문화공연을 함께 진행하여 지역사회 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북경반점(대표 홍성동)과 고수면 새마을부녀회 등 푸드봉사단을 비롯해 인제상운반운요법회, 재향군인회, 고창자연농이학교, 대한어머니회 등 전문봉사단과 고창고고장구예술단, 고창보양민요단 등 총 5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힘을 모아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지원과 공연·다양한 체험·돌봄 서비스를 다채롭게 마련해 제공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완주 농협 '양파 소비촉진' 실천**

농협 완주군지부(지부장 원천연)와 화산농협(조합장 김종재)고산농협(조합장 손병철)은 지난달 29일 최근 가격하락과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주관내 양파 재배농가들을 돕기 위해 '농심전심 범국민 완주군 양파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역사회복지시설에 양파를 전달하는 나눔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완주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양파의 소비를

확대하고, 양파 농가들의 판로 확보와 함께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김종재 화산농협 조합장과 손병철 고산농협 조합장은 한 목소리로 “이번 양파소비촉진 캠페인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양파 농가들의 한해 동안 땀 흘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다함께 노력하자”며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군산 신평동, 취약계층들에  
여름김치 나눔 실시**

군산시 신평동행정복지센터(동장 황보영)는 지난달 30일 신평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는 ‘여름입맛맞기 김치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번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취약계층 60세대의 여름철 식생활 지원과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열무김치와 맛김치를 전달하며 대상자들의 건강과 안부를 함께 살폈다.

특히 여름철 입맛을 돋우는 열무김치와 맛김치는 신선한 재료와 정성을 담아 정성껏 만들어졌으며, 무더위로 입맛을 잃기 쉬운 대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어양동 이웃애(愛) 돌봄단,  
주민 돌봄망 운영**

익산시 어양동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촘촘한 돌봄망 운영에 나선다.

어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하반기에도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웃애(愛)돌봄단'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어양동 '이웃애(愛)돌봄단'은 복지통장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돌봄이 필요한 16세대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진행한다.

참여자들은 대상자의 생활 실태를 살피고 위기 상황을 발견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는 등 지역 내 돌봄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인사 (7월 1일)**

- 전기안전공사 직원 승진·이동 인사
- ◇ 1(가)급 승진이동 (4명)
- ▲재난안전처장 전준만 ▲재생에너지처장 고병찬 ▲충북본부장 조영준 ▲경남본부장 조영용
- ◇ 1(나)급 이동 (12명)
- ▲전북서부지사장 소병환 등

- 국민연금공단 지사장 전보
- △남양주시지사장 박종필 △송파지사장 김덕훈 △동광주시지사장 황경희 △대구달성고령지사장 나선애 △온라인지사장 김영훈

- 건강관리협회 제27대 본부장 취임
- △이영선 신임 본부장

**우리건물 화재예방 안내**

**콘센트에 다양한 플러그 사용 금지**

**온열기구 미사용시 전원 OFF**

**전자기기에 물 닿지 않게 하기**

**콘센트 옆 화기배치 금지**

〈一事一言〉



삼단봉과 보디캠, 물류센터의 야만(野蠻)을 보며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출근길 가방 속에 노트북이나 도시락 대신 호신용 삼단봉과 증거 채집용 보디캠을 챙겨 넣는 노동자들이 있다. 전쟁터의 파병 군인 이야기가 아니다. 전남 나주의 한 물류센터를 비롯해 지금 대한민국 산업 현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섬뜩한 트로피의 한 장면이다.

어제까지 함께 땀 흘리며 차를 고치고 집을 나르던 동료들이 오늘 아침 “죽어야 쓰겠다”며 사물을 휘두르고 린치를 가한다. 사방에 설치된 4채널 블랙박스나 호신용품으로 무장한 채 일터로 향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은 우리 산업 현상이 이미 이성(理性)을 상실한 ‘내전 상태’에 돌입했음을 고발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라는 클래식한 노사(勞使) 갈등이 아니다. 조직을 장악한 거대 노조와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생계를 잇겠다는 소수 비조합원 노동자 사이의 잔혹한 ‘노노(勞勞) 갈등’이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의 숭고한 가치를 사라진 지 오래다. 오직 “우리 편에 서지 않으면 적”이라는 폭력적 이분법과 기록권을 쥔 다수가 미조직된 소수를 힘으로 짓밟는 야만만이 특색하고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거대 노조의 단체행동권은 그 어느 때보다 비대해졌고 난공불락의 권력이 되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권력의 그늘 밑에서 “파업하지 않고 일할 자유”, 즉 소극적 단결권은 철저히 난도질당하고 있다. 배송 기사

들은 무늬만 개인사업자일 뿐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전형적인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다.

하루만 차를 세워도 가계가 흔들리는 이들에게 파업 동참은 생존을 건 도박이다. 이들이 내린 눈물겨운 출근 결정의 대가는 참혹했다. 대형 노조는 배차권을 독점하고 현장 조직력을 무기로 불참자들에게 은근한 업무 배제와 경제적 보복을 가했다. 그것도 모자라 CCTV 사각지대에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며 동료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그들이 외치던 ‘노동 해방’이고 ‘약자 보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록권 노조의 이 같은 행태는 노동권 쟁취라는 본래의 명분을 스스로 더럽히는 것이며, 자신들이 그토록 비판하던 약력 자본가의 착취보다 더 잔인한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 착취’일 뿐이다. 이들의 변질된 폭력성으로 인해 저널리즘의 고고한 가치와 공정성이 훼손되듯, 노동운동의 순수성 역시 통째로 파산하고 있다. 대중들이 노조를 향해 ‘귀족노조’, ‘조폭노조’라는 모멸찬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이들이 자초한 결과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자욕도 앞에서 사측은 뒷집을 진 채 방관하고, 사법당국은 사후 약방문식 수사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법과 공권력이 현장의 폭력을 외면하는 사이, 소수 노동자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각자도생의 사투를 벌이며 사비로 삼단봉을 사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일할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정상적인 법치국가라 할 수 없다.

이 부조리한 현장의 야만은 이제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우리 전북 지역의 물류 및 제조 현장 역시 이러한 기형적 노노 갈등의 안전지대가 결코 아니다. 폭력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사법당국은 노조의 외피를 쓴 현장 폭력배들을 엄단해야 하며, 사측 역시 비조합원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할 법적·물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일하고 싶은 사람이 안전하게 일터로 향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가족을 부양하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이 지켜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바른 상식이다.

거대 노조의 힘의 논리에 밀려 소수 노동자의 생존권이 길바닥에 팽개쳐지는 현실을 인륜은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된다. 이번 물류센터의 내전 사태를 계기로, 일터에서의 폭력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방어벽이 마련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것이 무너진 산업 평화를 바로 세우고, 우리 이웃들의 평범한 출근길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사설

김관영 전 지사, 전북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남아주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도지사직에서 물러났다. 선거를 통해 새로운 도정이 출범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하지만 떠나는 지도자의 공과는 냉정하게 평가되되, 지역을 위해 흘린 땀과 헌신만큼은 존중받아야 한다.

민선 8기 동안 김 전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기반을 마련하고, 새만금 개발과 기업 투자 유치, 미래산업 육성에 힘을 쏟았다. 모든 정책이 기대만큼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며, 도민들의 아쉬움과 비판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쉽 없이 뛰어난 노력만큼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제 도지사직은 내려놓았지만 전북을 위한 역할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정치인은 자리를 떠난 뒤에도 경험과 중앙 인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국가예산 확보와 새만금 개발, 첨단산업 유치 등 전북 앞에 놓인 과제는 여전히 많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김 전 지사의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9기 역시 전임 도정의 성과는 계승하고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도정은 사람이 바뀔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책은 이어가고 잘못된 정책은 고쳐 나갈 때 발전할 수 있다.

김관영 전 지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지난 4년의 노고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전북의 원로 정치인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역할을 이어가길 기대한다. 전북을 향한 봉사는 직책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될 때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독자투고

안전모는 생명 지키는 가장 가까운 약속



도로 위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평소 익숙하게 다니던 출근길, 집 앞 가까운 거리, 잠시 물건을 사러 가는 짧은 이동에서도 위험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기 이용자의 경우 사고 순간 가장 크게 다치는 부위는 머리이며, 그 피해는 한순간에 삶 전체를 바꿔 놓기도 한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잠깐이라서”, “가까운 거리라서”, “답답해서”라는 이유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사고는 방심하는 순간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은 누군가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실천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교통질서는 법규 준수에서 시작되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해질 때 더욱 단단해진다. 안전모 착용 역시 마찬가지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일회성 행동이 아니라, 출발 전 자연스럽게 착용하는 생활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자동차를 타면 안전벨트를 매듯,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는 안전모를 먼저 착

용하는 문화가 일상이 되어야 한다.

김제경찰서는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중심의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계기관과 협업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를 강화하고, 출근 시간대와 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이는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시민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다.

가정에서도 안전모 착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서로의 안전을 먼저 챙겨야 한다. 직장에서는 동료의 안전모 착용을 자연스럽게 권하고, 지역사회는 안전을 배려하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안전모는 불편함을 더하는 물건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준비다. 사고 후의 후회는 너무 늦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짧은 거리가 괜찮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 생명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

김제경찰서 교통과 순경 모민경

오늘의시

선암사 / 정호승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고  
선암사로 가라  
선암사 해우소로 가서 실컷 울어라  
  
해우소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으면

죽은 소나무 뿌리가 기어 다니고  
목어가 푸른 하늘을 날아다닌다  
  
풀잎들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주고  
새들이 가슴 속으로 날아와

종소리를 울린다  
  
눈물이 나면 걸어서라도  
선암사로 가라  
선암사 해우소 앞  
등 굽은 소나무에 기대어 통곡하라

시인 약력 : 1950년 경남 하동 출생. 경희대 국어국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7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동시 '석굴암을 오르는 영희'로,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시 '침성대'로, 198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위령제'로 각각 당선됐다.

1979년 첫시집 '슬픔이 기쁨에게'를 출간했다. 제3회 소월시문학상, 제12회 정지용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주요 작품으로 시집 '별들은 따뜻하다'와 수필집 '첫눈 오는 날 만나자' 장편소설 '서울에는 바다가 없다' 등이 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등록번호전북가-00022(발행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중앙지사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8502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팔봉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닌 가족입니다

당신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는 가족이 있습니다.



# 익산시 '첨단 데이터'로 모기 잡는다



## 디지털 감시 장비 도입 모기 개체 수 실시간 분석 등산로 기피제 분사기 자동 소외계층 '가정방문 방역'

익산시가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모기와 진드기 등 위생해충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하절기 철통 방역 체계에 돌입했다.

시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과학 방역',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방역', 소외계층을 보듬는 '복지 방역'을 결합해 하절기 종합 방역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실시간 모기 추적하는 '디지털 과학 방역' 기술 전격 도입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매개체 방제다. 시는 주요 거점 9개소에 '모기발생감시장비(DMS)'를 가동한다. 이 장비는 실

시간으로 모기 개체 수를 분석하고 감염병 매개 모기의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한다.

이를 통해 해충이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방역단이 즉각 현장으로 출동하는 상시 대응 시스템을 갖췄다.

또한 시민들이 자주 찾는 신규 조성 공원과 해충 민원이 잦은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해충 표충기를 대폭 추가 설치해 야외 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친환경 방역'과 '진드기 차단 조치'

시민 건강과 생태계 환경을 모두 고려한 친환경 방역 소독은 물고임 지역 등 해충의 원천이 되는 유충 서식지와 성충 방제를 병행해 마을 전역에서 실시된다.

야외 활동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SFTS 등) 예방을 위한 진드기 기피제 자동분사기도 주요 등산로와 산책로에서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5월 12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역 약품과 장비 보급을 모두 마치고 하절기 방역사업 발대식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현장 대응 태

세를 끝마쳤다.

◆ 사각지대 없는 '복지 방역'...찾아가는 홍보역, 어르신 방역단 가동

특히 이번 하절기에는 방역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거동 불편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전문 소독업체와 연계한 '가정방문 홍보역 서비스'를 전격 지원한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 사업인 '다이어운 보건생활'을 통해 선발된 38명의 어르신 방역단이 현장 최일선에 투입된다.

어르신 방역단은 방역 취약지역 17개소를 대상으로 해충의 근원인 고인 물을 제거하고 유충구제 방역 작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진윤 익산시 보건소장은 "기후변화로 해충의 활동 시기가 빨라진 만큼 실시간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과 현장 맞춤형 홍보역을 통해 감염병 매개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화분 받침이나 향아리 등 집 주변의 고인 물 제거와 같은 생활 속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이진윤 익산시 보건소장

